

2017년 5월 17일, 안덕면 서광리 서광서리경로당, 김승연 조사.

강추월(여, 1928년생, 안덕면 서광서리)

- 줄거리: 어느 집에 큰부인이 아기가 없어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또 아기가 없었다. 큰 부인이 워낙 돈이 많아 셋째 부인을 데려왔다.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큰부인은 돈으로 환영하겠다고 하고 둘째 부인은 꽃다발로 환영하겠다고 하는데 셋째 부인은 귀동자로 환영하겠다고 했다. 그 후 셋째 부인의 배가 조금씩 커 갔다. 큰부인은 귀동자가 태어나면 자기들은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기가 태어나자 동네 개잡는 사람에게 아기를 치우라고 시켰다. 아기를 소에게 던져 버렸는데 소는 그 아기를 먹고 금송아지를 낳았다. 금송아지가 커가면서 셋째 부인에게만 귀염을 떨자, 큰부인이 이를 싫어하여 개잡는 사람에게 금송아지를 죽이라고 했다. 하지만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고 보내주었다. 3년 뒤에 과거시험을 보러 간 남편이 돌아오고 근처에 금송아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아 잡아왔는데 금송아지가 '내가 아버지 아들입니다.' 하며 울었다. 남편은 큰부인과 둘째 부인을 벌하고 셋째 부인을 잘 모시며 살았다.

[조사자] 옛날 할머니한테 들어난 말?

[제보자] 우리 어린 때 들은 소린디 금송애기 너네 집이서 메어지민 놈이 아냐? 훈 소리가, 너네 집이 돈 하민 누가 아냐? 훈 걸로 다 인정히지예. 경 안 하고, 스님이 하는 소리가

“느네 집이 금송아지가 잇은 걸 내가 아냐?”

훈 소린

“너네 집이 돈 핫젠 훈 소린디 그게 아니우다.”

“어떻 헛수과?”

하나네에, 큰각시가 애기가 없어. 게난 또 셋각시 얻어도 애기가 었어. 게난, 워낙 큰각시가 돈이 많고 이제 작은 건 세체 첩으로 오젠 허난 어디 간 두르벵이 닳은 걸 하나 봉가 온 생이라. 하나네 이제 서방이, 과거시험을 보러 가젠 허니가 큰각시?라

“넌 나가 만약 과거를 합격허영 오면, 뭇으로 환영홀레?”

하나네,

“금전으로 환영헛겟습니다.”

셋각신

“뭣으로 환영 할레?”

하나네,

“꽃다발로 환영하겠습시다.”

하고 그 죽은각시?라 들으니까

“나는 귀동자로 환영을 하겠습니다.”

하나네 이젠, 그 말 들은 이제 과거시험을 받 왔는데, 과거시험 보레 가부니까, 죽은각시가 베가 둘씩둘씩 커 가거든. 한난 ‘야, 이거 귀동자로 헉켄 헨게 진짜 이거 귀동자가 나면은 우리는 춤 둘이 다 나가게 됐었구나.’ 생각헨 이젠, 큰각시가 양병을 행 그냥 안 아파도 아프?렌 막 죽어지켄 혼 거라. 셋각시?라

“어디 강 들어봐 오라.”

하나네, 그짓말로 이젠

“느네 집에 금송아지.”

겨나네 이젠 그 아기가 둘씩둘씩 커 가나네 아들이 난 거라. 아들을 나나네 이젠 동네 개목쟁이?라 오라그네 저 아기 어드레 치와주민 돈을 엄청 주켄 하니 까 그 사름이 온 거라. 오란 애기를 그자 영겁지레 그자 죽이지도 못하고 확 었 아돈에 췌 앞더레 픽 데껴불었어. 겨니까 그 애기를 소가 먹은 거여, 먹은디 송아질 난디 완전 금빛이라. 빈찍빈찍 금빛게, 애기로 그냥 나온 거라. 그냥 금만 썬 송아지처럼 나왔인다. 이젠 뭇 일을 허여 가민, 아니 경 한난 이젠 양병 행 갈라저둬서로,

“아이고, 이젠 어떻 허영 좋고 금송아지 나난게 참 희안흔 일이여.”

한난 어디 강 들으나네

“저 집이 금송아지 잡아먹으민 좋겐 흡디다.”

경 한민

“아이고, 그치록 귀흔 걸 잡아 먹으민 뉘느냐. 또 어디 강 혼 밧디 강 더 들어 뵙 오라.”

또 그 말광 그자

“또 서너 밧디 강 들어도 경 곱읍디다.”

하니까,

“야, 이젠 또 아니로구나.”

또 이젠 그 금송아지가, 어명이 그자 옛날에 연자방아를 지켄 한민 이녁만 막 밀리멍 헛인다. 그 송아지가 이녁 난 어명 허여 가민 막 앞이 강 베드랑베드랑허멍 지꺼지게, 그걸 보멍 그 춤 장난 부쩌그네 밀려지게 헉곡, 밥을 먹어가민 하도 송아지가 귀여우니까 밥을 혼 숟가락 그때 시절에 밥이 어디 시리만은, 영 지

방더레 노민 톱 주워 먹영 가곡 하니까. 춤 큰각시덜은

“아이고, 춤 고약스럽다.”

헤가지고 그 송아질 잡아먹을 걸로 헛어. 이제 또 그 사름?라이, 송아질 어드레 이동시켜 드렌 하나네, 송아질 심어당 죽여볼젠 헤 가니까 송아지가 눈물을 닥닥닥 허거든 거니까

“그러문, 이 인간처 눈에 안 보이는 디, 저 무인처에 가그네, 살아그네 인간 눈에 보이지 말라 나가 경 죽여볼?렌 헤키여.”

하나네

“그러라.”

고 헨 말을 들언, 혼 삼 년은 돼니까 그 사름이 과거시험 받 들어오고 동네 사름이 간 보니까

“야 어디 금송아지 봐지더라.”

한

“금송아진 그때 잡아먹었는디 어디 잇나?”

영 헛거든 게난 또 다음은 또 두 사름 눈에 보이거든, 다음 또 세 사름 눈에 보인 거라게. 보이니까. 이젠 그 사름?라 장관?라 골은 거라

“영정 헤그네 봐집데다.”

한

“잡아오라.”

고, 잡아 오니까 참 귀엽거든 송아지가 겐디 장관하는 소리가 앞이 왕 하는 소리가

“나 아버지 아들입니다.”

헛거든. 게나네 큰각시, 셋각시 다 때려 죽이렌 헤뒀에 그 족은각실 잘 모셔된 살았다고,

응 그랬더라 합니다.

[조사자] 아, 금송아지예. 이거 할머니안티 들었구나예.

[제보자] 스님안티 들었지.

- 핵심어 : 금송아지, 큰각시, 셋각시, 과거시험, 귀동자 환영, 양병, 족은 각시, 큰부인, 작은부인, 아들